

CMRI, 중국수출 고부가화 시급하다!

2005 중국박람회 주제 발표 ... 석유화학 자금체제 대비 단계접근 필요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05년 3월23일을 시작으로 3월25일까지 KOEX 장보고홀에서 개최되는 중국 투자진출박람회에서 중국 석유화학 시장 진출전략을 제시했다.

화학경제연구원(CMRI) 김은진 선임연구원은 『중국석유화학산업』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중국 수출경향에 대해 “벤젠을 제외한 전 제품이 확실한 수출특화제품이며,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지닌다”고 분석하고, 수출전략으로 “PP Compound 그레이드와 같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제품으로의 수출 그레이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화학기업 사이의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는 것과 동시에 한국기업간의 경쟁을 없애 Seller's Marketing Power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거래할 때 Nego Power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세한 내용과 강연 PPT 파일은 월요일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2005 중국투자진출박람회 개막식>

<CMRI 중국 석유화학산업 세미나>

중국투자진출박람회는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입업협회 등이 후원하고 중국투자설명회와 중국진출세미나, 중국 산업·시장별 분석세미나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중국의 산업·시장별 분석세미나는 3월23일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현황 및 과제, 중국기업 M&A 기법, 중국 석유화학산업 현황과 진출과제를 비롯해 중국 이동통신서비스, 의약품, 이동통신 단말기, 의류패션, 인터넷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3월24일에는 중국 자동차부품, 건설 및 부동산, 환경산업, 기계가공, 유통시장, 물류서비스 시장 등에 대한 세미나를, 3월25일에는 중국 관광 및 주식시장, 식품시장,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분석세미나가 개최된다.

중국투자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2005 중국투자진출박람회에는 중국 현지의 여러 관련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에 힘썼으며, 한국기업들도 대거 참가해 열기를 한층 더했다.

화학경제연구원의 석유화학 세미나에는 국내외 석유화학기업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중국에서 3번째로 건설된 공업단지인 Qilu Chemical Industrial Park의 외자유치단이 참석하는 등 중국투자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5/03/25>